

Y2K가 남긴 교훈

‘엉성한 준비’, ‘나만 살기’ 버려야

Y2K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컴퓨터의 연도인식 오류는 ‘밀레니엄 버그’에 앞선 ‘99버그’로 새해 벽두부터 세계 곳곳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심각한 Y2K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미국·일본 등은 96년도부터 대책을 서둘러 왔는데 우리는 98년에 뒤늦게 협의회를 구성했는가 하면 일반인 홍보는 뒷전인 채 문제가 생겨도 정보를 서로 나누지 않고 어물쩍 넘기는 것이 아닌가. Y2K를 이겨내는 현명한 지혜가 아쉽다.



洪垠姬
(중앙일보 생활과학팀장)

올해는 아무래도 Y2K(컴퓨터 연도인식 오류)를 떠나서 살 수 없을 듯하다. 작년 말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Y2K의 문제는 마침내 ‘99버그’까지 거들며 새해 벽두부터 세계 각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택시 3백여대의 미터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는가 하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일부 택시미터기가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계산해 내지 못했다. 또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슈타트 오일’의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들은 한때 작동이 중단됐고 스웨덴의 3개 공항에서는 임시여권을 발행해주는 경찰컴퓨터에 오작동이 발생해 여권발행이 일시 중단됐었

다. ‘99’를 ‘작동중지’ 또는 ‘파일종료’라는 뜻의 코드로 사용해온 컴퓨터들이 오류명령으로 인식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99버그’가 올해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4월 1일, 9월9일, 12월31일을 ‘요주의 날’로 꼽을 정도다.

‘99버그’로 벌써부터 혼란

본격적인 심각함은 밀레니엄 버그에 있다. 뉴욕시에서는 불법자동차 자동과속단속기가 과속차량 발견과 사진 촬영, 상황기록과 고지서 납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발부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다른 기능도 작동이 중단된 사고가 일어났다. 스위스 바트주 내 거의 모든 병원의 컴퓨터에서도 정초 2000년 연도인식 오류문제가 발생, 환자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었다. 밀레니엄 버그의 특징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비행기 추락사고며 미사일 등 첨단무기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나타날 끔찍한 세계 재앙을 강조하는 반면 이런 극단적인 비관론은 세기말

신드롬을 타고 과장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어느 쪽 견해가 ‘진실’이 될 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밀레니엄 버그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 뿐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컴퓨터시스템의 Y2K문제 해결진척도는 30%대라고 한다. 금융분야는 진척도가 빨라 은행권의 경우 97.1%가 완료됐다고 한다. 아시아나 항공은 2000년 1월 1일 예약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은 교환기분야의 55%를 해결했다고 들린다.

정부에서도 정보통신진흥협회내 Y2K인증센터를 설립, 한전정보네트워크를 Y2K인증센터로 지정하는 한편 금융, 원전, 환경, 여객안전, 수자원 등 13개 중점관리분야를 정하고 수력발전 등 분야별 해결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또 정부투자기관이 Y2K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을 문책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Y2K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 현장지원반을 조직, Y2K의 문제에 적극 대응한 기업은 자금지원시 우대하거나 K마크 등 품질인증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당근과 채찍’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여러 조치들과 기업들의 자구 노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뒤늦은 출발을 한 나라치고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기술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그룹은 총 기업수에서

Y2K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33%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Y2K는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나 나는 Y2K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또다시 발견한다.

그 첫째가 '영성한 준비력과 엄청난 실천력'이다. 미국은 96년 의회에 Y2K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호주와 일본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Y2K 위원회가 96년 구성됐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Y2K협의회가 총리실에 구성된 것이 겨우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다음이었다. 밀레니엄 버그나 '99 버그'는 어느날 갑자기 우리 앞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처럼 능력을 부렸으면서도 금년 3월까지로 못박은 미국의 Y2K의 문제해결 시한과 우리의 6월 시한을 떠올려보면 그 엄청난(?) 실천력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둘째는 '나만 살기'다. 서울대병원에서는 80년 외래환자 관리 컴퓨터 시스템 도입 이후 1800년대에 출생한 환자 5백명의 환자등록시 컴퓨터가 출생연도 끝 두자리만을 읽어내 1900년대 출생자와 혼동을 일으켜온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출생연도를 00년으로 등록하는 등 응급조처로 해결해왔다고 한다. 컴퓨터모형이 구식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Y2K의 문제를 어물쩍 지나버린 것은 바로 무엇이든 함께 나누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나는 여긴다. 만약 이를 공개하고 개선점을 함께 찾아보았

다면 Y2K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더 빠르지 않았을까. 아직도 현장에서는 Y2K문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기 드물다. 오죽해야 전문가들이 정보공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설까. 의료기기, 자동차 설비·시스템 통합사업체의 문제해결방법과 경험이 공유되면 문제해결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셋째가 '일반인은 뒷전'이다. Y2K 문제에서 일반인은 철저하게 내팽개쳐져 있다. Y2K를 막기 위해 이런저런 대책들은 무성하지만 정작 일이 벌어졌을 때 개인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해야한다는 발상은 아직 아무데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Y2K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널리 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그들은 참으로 '사람대접'을 받고 산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재앙 극복에 현명한 지혜를

Y2K에 대비하는 미국의 한 시민 모임인 카산드라프로젝트는 올 가을부터 2000년 2월까지 2개월분의 생활비를 통장에서 빼내 미리 확보하고 월부금이나 자동이체도 가능한 것은 3~4개월치를 앞서 낸 뒤 영수증을 잘 챙겨두고 입출금 상황이 기록된 통장을 잘 보관할 것을 발표했다. 유효일이 2000년까지 가는 신용카드를 이 기간동안 사용을 자제하라니, 실시계가 내장돼 있어 점검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자동차의 경우 자

동점검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별도로 차계부를 적어두라느니 하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 또 미적십자사는 중환자로 장기 입원중이거나 심장박동보조기, 투석장치 등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약물자동공급장치 등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자나 가족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 병원측에 문의해 환자 이송 등에 대한 대책을 숙지하고 정기 투약자들은 미리 여분의 약을 타두라고 권하고 있다.

또 Y2K의 발생시점이 겨울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시기 단전·가스공급 중단 등에 대비하고 연말이 오기 전에 비상식량, 건전지, 구급약 등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Y2K를 우려한 대규모 현금인출사태에 대비해 현금 5백억달러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면 1억명이 평균 5백달러 정도를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란단다. 영국에서도 국민들에게 Y2K로 말미암은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 최소 2주일분의 비상식량을 미리 비축해 둘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치안당국은 한 발 더 나아가 Y2K로 인해 은행, 상가, 주택 등의 치안망이 허술해지는 틈을 타 올해 말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1천4백명의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전문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을 정도다. Y2K는 분명 재앙이지만 재앙과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 사회 전체의 성숙도가 달라질 수 있다. Y2K는 그 좋은 실험무대였으나 우리는 또다시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 같다. ①7